

한국 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김양희* · 유성경** · 임지숙***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직업 세계 진출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여대생들의 진로지향성이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여대생들의 높은 진로지향성이 어떤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탐색하였다. 총 345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지향성, 다중역할계획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중역할계획태도는 진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향성이 높은 여성들이 일-가족 경험을 긍정적으로 통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개인적 변인을 탐색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론적, 실제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여성 진로, 진로지향성, 다중역할계획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skyoo@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과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권위적인 가부장적 가족 질서 내에서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수동적으로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 농경사회, 공업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었고, 이러한 여성들의 왕성한 사회진출은 전통적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 과정 속에서 1999년에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교육과 고용 현장에서 양성평등이 법률적, 제도적, 교육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여성의 진학과 취업이 급증하면서 2005년에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0.8%가 되었고, 석사의 43%, 박사의 2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또한 2007년 여성취업 인구수는 전체 취업인구의 약 42%(전체 여성 중 54.8%)를 차지하였고, ‘맞벌이 부부’는 40.1%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이러한 양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다중역할 수행은 이제는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현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어머니, 할머니 세대와 달리 가정을 꾸리는데 직업이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Blau & Ferber, 1992; Peake & Harris, 2002; Reskin & Padavic, 1994).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서구 문화에 비해 여성들의 가족지향성에 대한 기대가 월등히 높아 여성이 자신의 진로 발달에 집중하고 이를 우선시하는 진로지향성을 지니게 되면 불가피하게 복잡한 내적, 외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놀라운 양적 지표의 변화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병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며(한국여성연구소, 2000), 이는 여성들의 진로지향성이 여성들의 삶에 갈등의 경험으로만 지각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들의 진로지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다중역할은

갈등 경험으로도 지각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승의 경험으로도 지각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일과 가족의 두 영역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두 집단이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들이 여러 경험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강은주·한주희, 2009; Crosby, 1991; Frone, 2003; Grzywacz & Marks, 2000; Rothbard, 2001). 또한 일과 가족 경험이 상호 긍정적인 경험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긍정 경험은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미자(2003)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기회가 증가되고, 자기 존중감, 확신과 같은 심리적인 자원이 증가하게 되면 높은 심리적 안녕을 촉진시켜 결국 인생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고통을 완화해줄 수단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여성, 여대생의 진로와 다중역할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지향성에 의하여 남성과는 다른 진로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Peake & Harris, 2002), 이들로부터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가정과 진로간의 갈등, 양육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하여 남성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Eisenhart & Holland, 1992). 여성의 다중역할 수행은 오랫동안 가족 내 역할 책임과 직장에서의 역할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는 여성의 갈등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왔다(권선영, 2005).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가족 내 역할로 규정되어 왔으며, 여성이 가정 밖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내외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여성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남성보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상황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성식·정철영, 2007).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다중역할 갈등에 대한 예상은 본격적으로 다중역할을 경험하게 되는 성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나이부터 미래의 결혼 및 육아에 수반되는 책임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덜 유망하고 임금이 낮은 진로를 선택하고(O'Brien et al., 2000), 더 전통적인

여성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매향 외, 2003).

여대생의 경우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요인을 진로장벽 가운데 가장 높은 장벽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은령·김계현, 2002), 우수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과학관련 직종을 일찍이 기피하는 경향(Ceci et al., 2009)을 보였고, 미래 자신의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유성경,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성들이 다중역할에 대한 갈등을 실제 일과 가족 역할을 병행하는 시기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을 구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O'Brien과 Fassinger(1993)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 양육과 집안일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모, 배우자, 직업인으로서의 다중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지향성, 다중역할과 삶의 만족도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데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계속해서 발달시켜나가는 경향성을 보인다. Battle과 Wigfield(2003)는 여대생의 가족, 진로, 대학원에 대한 가치 지향성에 대한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강하게 진로 지향적임을 밝혔다. Hoffnung(1993)의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의 94%가 일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86%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Bronzaft(1991)의 연구에서도 대학교 1학년 여대생 중 85%가 일, 결혼, 가정을 모두 아우르는 삶의 방식을 지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가족지향성을 지녔다면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점차 진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진로지향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가족지향적인 기대와 상충되면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지만(Betz & Fitzgerald, 1987; Fitzgerald & Crites, 1980),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진로 지향성이 높아 다중역할을 기대하거나 수행하는 여성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nett과 Baruch(1986)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입된

역할의 수가 아니라 관련된 경험의 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어떤 질적인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을 언제 이룰 것이며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일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신중한 계획을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적응과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teffy & Jones, 1988). 김금운과 윤가현(1998)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중역할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가계생활수준이나 직업만족도, 친밀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아내 역할과 가정경제 기여도는 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여성들이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을 대처하고 진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중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양은주, 1998; 우영지, 2008), 직업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다중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태도와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Weitzman, 1994). 다중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Weitzman(1992; 1994)은 다중역할 현실성 이론을 제시하며 다중역할 현실성의 구성개념을 다중역할 태도, 다중역할 지식, 다중역할 계획 3요소로 제안하였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현실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시기로 직업세계와 결혼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진로 결정과 결혼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다중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계획하는 것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중역할 갈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다중역할계획태도가 높은 여대생일수록 진로결정과 진로포부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문미란, 2003; 안진아, 2008), 자기 주체성과 문제해결평가가 높은 여대생일수록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다중역할계획태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McCracken & Weitzman, 1997; Weitzman & Fitzgerald, 1996). 또한 다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다중역할 수행 이전에 계획적인 책략들을 세우는 것이 삶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Steffy & Jones, 1988) 청년기의 일과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정경은, 2009). 실제 Cunningham과

Rosa(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일에 대해 미리 주의 깊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족일 갈등을 막아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과 삶의 만족도

여성들의 다중역할태도와 더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즉 여성들이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해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가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될 수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수행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성공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해결 방안을 인지적으로 시연한다. 반면에 스스로를 비효능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패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일이 어떻게 잘못될 것인지를 꼼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의 비효능적인 사고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수행을 저하시킨다(황소연,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Hackett과 Betz(1981)가 설명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한주옥, 2004). 여성의 경우, 내면화하는 사회적 성역할의 내용이 남성과 다르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문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김지현, 2006; 오치선·이복희, 2005). 실제적으로 남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여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임선희·전혜영, 2004), 이에 대한 내적통제나 자기조절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이숙정·유지현, 2009), 합리적으로 진로목표를 결정하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봉환, 2007). 그러므로 진로지향성이 높은 여성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실제적으로 예상되거나 실재하는 많은 진로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의 객관적인 조건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판단이므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송진영, 2008).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여러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주어진 기준에 근거한 행복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행복, 즉 행복의 주관성에 대해 강조하였다(임남연 외, 2010).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은 일시적인 정서나 사건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비교적 변동의 폭이 작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Stubbe et al., 2005),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일시적으로 변화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의한 만성적 삶의 만족도 수준을 되찾게 된다(Headey & Wearing, 1989; Suh et al., 1996). 다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이 처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그 자체로 삶의 만족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여성 개인의 다중역할에 대한 태도 및 자신에 대한 확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진로지향성이 높아졌다는데 주목하여, 여대생들의 진로지향성이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진로지향성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 2. 진로지향성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 가설 3. 다중역할계획태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 가설 4. 진로지향성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수도권 4개 대학과 비수도권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는데,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중 35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본 연구가 한국 여자대학생의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이므로, 결혼하여 이미 다중역할을 수행 중인 기혼자 12명과 외국인 학생 1명을 제외한 345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다중역할계획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미래의 다중역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Weitzman(1994)이 개발한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TMRP)를 양은주(1998)가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ATMRP는 지식·확신성, 다중역할 몰입, 독립성, 개입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을 측정하는 10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0문항이다.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준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은주(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되, 기존의 국내 연구(양은주, 1998; 우영지, 2008)에서 한국적 문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하위척도로 밝혀진 독립성 척도를 제외하고 지식·확신성, 다중역할 몰입, 개입 3요인의 30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지식·확신성이 $\alpha = .81$, 다중역할 몰입이 $\alpha = .86$, 개입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45

변 인	구 분	n (%)
연 령	M = 21.3세 (SD = 2.07)	
학 년	1학년	63명 (18.3%)
	2학년	82명 (23.8%)
	3학년	96명 (27.8%)
	4학년 이상	100명 (29.0%)
직업계획	직업계획 있음	326명 (94.5%)
	직업을 가질 계획이 없음	2명 (0.6%)
	아직 결정하지 않음	11명 (3.2%)
	무응답	6명 (1.7%)
교육계획 (310명 응답)*	학사졸업	117명 (37.7%)*
	석사졸업	132명 (42.6%)*
	박사졸업	61명 (19.7%)*
결혼계획	결혼계획 있음	239명 (69.3%)
	결혼할 계획이 없음	20명 (5.8%)
	아직 결정하지 않음	81명 (23.5%)
	무응답	5명 (1.4%)
자녀계획	자녀계획 있음	220명 (63.8%)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음	30명 (8.7%)
	아직 결정하지 않음	84명 (24.3%)
	무응답	11명 (3.2%)
희망 자녀수 (221명 응답)**	1명	22명 (10.0%)**
	2명	146명 (66.1%)**
	3명	55명 (24.9%)**
	4명 이상	13명 (5.9%)

주. * 괄호 안의 비율은 교육계획 응답자에 대한 비율임.

** 괄호 안의 비율은 희망 자녀수 응답자에 대한 비율이며, 중복응답에 따라 사례수와 비율의 차이가 있음.

2) 진로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진로를 지향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attle와 Wigfield (2003)가 개발한 가족 대 진로지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문항을 확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연구자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어로 역번역을 한 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을 두 명의 심리학 전공 박사 과정생이 동일성 평정을 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총 16문항의 척도로 5점 척도(1 = 강하게 반대함, 5 = 강하게 동의함)로 답하게 되어있으며, 10번부터 16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를 지향하는 정도(Career Orientation)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alpha = .77$ 로 나타났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수정·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Likert척도이며,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목표선택이 $\alpha = .85$, 직업정보가 $\alpha = .78$, 문제해결이 $\alpha = .79$, 미래계획이 $\alpha = .62$ 로 나타났다.

4)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보편적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척도를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 척도로 번안한 것을 김정호(2007)가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7점 척도(1 = 매우 반대한다, 7 = 매우 찬성한다)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alpha = .84$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서는 연구자들의 감독아래 실시되었으며, 비수도권 소재의 2개 대학은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학과 교수의 감독아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총 시간은 약 30분 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본 후,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진로지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변인과 하위변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가 진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로 연결되는 경로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AMO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중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는 지수이며 CFI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수이다(홍세희, 2000). CFI와 TLI의 경우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Hu & Bentler, 1999),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의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1986)의 Z공식을 이용하였다. Sobel의 Z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공식에서 a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b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고, Sa, Sb는 각각 a와 b의 표준오차이다. Sobel의 Z공식에서는 Z값이 산출된 Z값의 임계치인 ± 1.96 에 비교하여 $p < .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에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제시된 공식은 MacKinnon과 Dwyer(1994)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본 연구의 연구변인들과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변인인 개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과 진로지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문제해결과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

N =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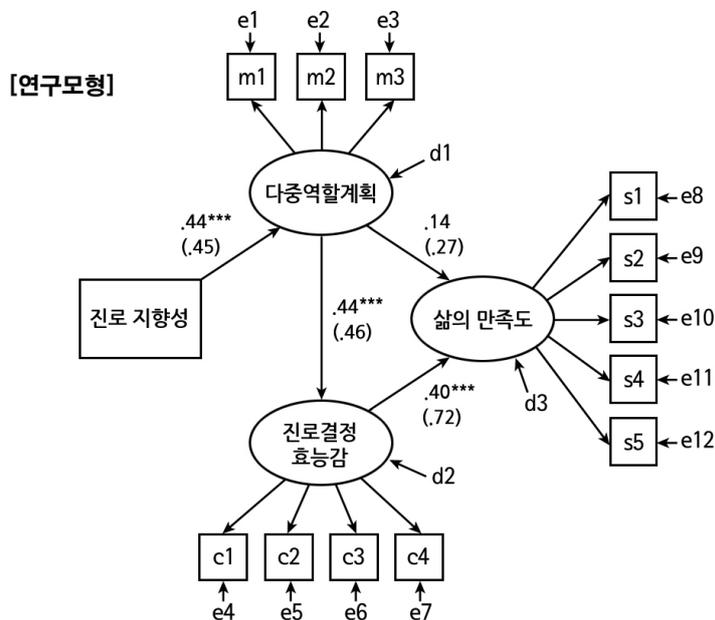
변인	1	2	3	4	5	6	7	8	9
1. 지식·확신성	-								
2. 몰입	.36**	-							
3. 개입	.18**	.24**	-						
4. 진로지향성	.20**	.38**	-.12*	-					
5. 목표선택	.33**	.27**	.12*	.21**	-				
6. 직업정보	.27**	.17**	.10	.13*	.77**	-			
7. 문제해결	.25**	.11*	.06	.09	.57**	.54**	-		
8. 미래계획	.25**	.25**	.08	.18**	.76**	.65**	.51**	-	
9. 삶의만족도	.18**	.23**	.21	.06	.35**	.37**	.39**	.36**	-
M	3.09	3.98	3.15	3.60	3.69	3.35	3.04	3.85	4.43
SD	.57	.62	.69	.46	.53	.56	.69	.64	1.05

주. *p < .05, **p < .01

지식·확신성, 몰입, 개입은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변인이며,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변인임.

2.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과 추정결과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진로지향성이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이때 다중역할계획태도는 진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고, 동시에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할 것이라고 보았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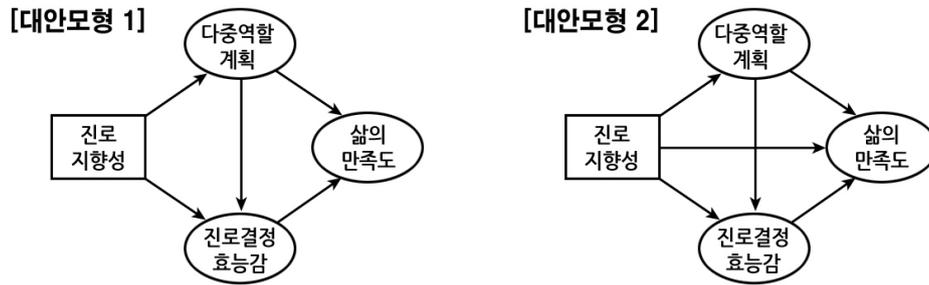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괄호 안의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m1~ m3, c1~ c4, s1~ s5: 각각의 잠재변수의 하위변수. e1~ e12: 측정오차, d1~ d3: 내생변수의 오차. ***p < .001

이 과정에서 진로지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대안모형 1),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대안모형 2)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안모형도 같이 검증하였다(그림 2). 검증결과, 세 모형 모두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으나, 내재된(nested) 모형 간의 모형비교에 사용되는 χ^2 차이 검증에서

자유도와 χ^2 값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연구모형이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표 3〉). 본 연구에서는 χ^2 차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세 모형 중 더 간명한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그림 2] 대안모형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로 연결되는 경로의 계수를 추정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때 다중역할계획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05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처음에 세운 가설 2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 → 삶의 만족도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다중역할계획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1).

<표 3>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N = 345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125.384	62	.942	.961	.055 (.041-.068)
대안모형 1	125.195	61	.941	.960	.055 (.041-.069)
대안모형 2	122.128	60	.942	.962	.055 (.041-.069)

마지막으로,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첫 번째로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에서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¹⁾는 $Z = 3.29(p < .001)$ 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서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의 경로에서 매개효과²⁾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Z = 3.29(p < .01)$ 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여대생들의 진로 지향성이 다중역할 계획 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들의 진로지향성은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이 높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갖는 것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는 않지만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경로와 함께 진로지향성 →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와 다중역할계획태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의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들이 높은 진로지향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다중역할에 대한 지식, 계획과 확신을 갖고, 더불어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을 지니게 될 때 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가 여성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기존의 여성 진로발달 관련 연구결과들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자신의 진로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1) Sobel 검증, $a = .450$, $b = .458$, $Sa = .081$, $Sb = .112$.

2) Sobel 검증, $a = .458$, $b = .720$, $Sa = .1121$, $Sb = .130$.

만(정경은, 2009; 하 정·유성경, 2007; O'Brien et al., 2000), 실제로 여성들이 다중 역할을 수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장벽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여대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을 고양해 나갈 때,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다중역할 수행의 현실, 자기 태도 점검 및 다중역할 수행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함께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상담 및 심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중역할계획태도 →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대생들이 높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함의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의 다중역할과 진로에 대한 연구에서 발달시기적인 특성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적절한 다중역할의 수행과 준비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실제적인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전인 여대생인 점을 감안하면 다중역할의 수행이나 계획에 따라 직접적으로 삶에서의 만족을 경험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의 다중역할계획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대생이라는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변인인 진로에 대한 확신이 매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의 다중역할에 대한 연구가 여성의 발달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 함의점은 여성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다. 기존의 여성 진로 관련 선행 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취 및 포부 등 진로와 관련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이성식·정철영, 2007; 이현림·천미숙, 2003; Betz & Fitzgerald, 1987; Hackett & Betz, 1981). 본 연구에서는 진로효능감이 진로관련 변인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들이 일·가족 다중 역할에 대한 지식, 확신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더라도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진로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니는 주관적인 확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가 현대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나타난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인, 여성들의 높은 진로지향성과 취업률에 대한 이론적 이해 및 실제적 개입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높은 진로지향성은 갈등과 촉진이라는 양가적인 측면을 예상하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직업 세계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중역할에 대한 탐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제까지 여성들의 일-가족 경험은 주로 갈등의 경험으로 이해되어 왔다면(권선영, 2005), 최근에는 상호보완적 입장 나아가서는 상호촉진적인 경험이 된다는 보고들도 늘어나고 있다(강은주·한주희, 2009; Frone, 2003; Rothbard, 2001). 그러나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치가 팽배한 한국 문화 맥락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진로지향성은 복잡한 갈등의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신세대 여성들은 팔목할 만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여성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 자신이 자신의 진로 결정과 발달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을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준다. 실제 객관적인 사회제도인 성차별적 법·제도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진로 결정에서는 여전히 남성들보다 낮은 진로 포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김양희·유성경, 2009; Betz, 1994; Domenico & Jones, 2006) 여성들이 “일하는 자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기 점검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의 진로 지향성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성들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 여성들의 진로 지향성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일 만족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계획 태도 및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인, 심리적 변인만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 등 사회적 변인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적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여성들의 진로 지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은 한국 여성들의 진로 관련 척도 개발에 관한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여성의 진로발달의 특수성(김진숙·이종희, 2003; 손은령, 2001; Taylor & Pryor, 1985)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인인 여성에 대한 역할기대 또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손은령, 2002; Betz & Fitzgerald, 1987; O'Brien & Fassinger, 1993). 여성들의 진로 지향성, 다중역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문화적으로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진로발달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기대를 반영한 척도개발이 필수적이다.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 특수적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문화적 전환기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유한 다중역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은주·한주희(2009). 일-가족 갈등의 선행변수로서 개인적 특성.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4호, pp. 1937-1960.
- 권선영(2005). 다중역할 수행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복합성의 완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금윤·윤가현(1998). 중년기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3권 제1호, pp. 88-102.
- 김봉환(2007). 집단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지각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제8권 제4호, pp. 1453-1465.
- 김양희·유성경(2009).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종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제3호, pp. 447-465.
- 김정호(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2호, pp. 325-345.
- 김지현(200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 대한 진로결정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상담학연구*, 제7권, pp. 1153-1167.
- 김진숙·이종희(2003).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 장벽. *상담학연구*, 제4권 제4호, pp. 773-788.
- 문미란(2003).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다중역할갈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2001). 진로 장벽 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제28권, pp. 81-97.
- 손은령(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지*, 제2권, pp. 1-14.
- 손은령·김계현(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1호, pp. 121-139.
- 송진영(2008). 중년 남성의 다중역할 몰입,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모형 분석.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진아(2008). 역할모델 및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와 진로포부의 관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은주(1998).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연구-태도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치선 · 이복희(2005).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2권, pp. 93-113.
- 우영지(2008). 여대생의 개인 특성에 기초한 다중역할계획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지각 수준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자(2003). 여성관리자의 다중역할 몰입이 심리적 안녕과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 · 정철영(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4호, pp. 83-109.
- 이숙정 · 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제2호, pp. 35-64.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림 · 천미숙(2003). 성인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pp. 1-34.
- 임남연 · 이화령 · 서은국(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제1호, pp. 21-47.
- 임선희 · 전해영(2004). 여자대학생의 직업세계 이행과 진로장벽.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pp. 101-120.
- 정경은(2009). 이성 관계 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환 · 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통계청(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9). 지역별고용조사: 시도 및 전국. 대전: 통계청.
- 하 정 · 유성경(2007). 학업우수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8권 제4호, pp. 1521-1540.
- 한국여성연구소(2000). 여대생의 직업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노동부.
- 한주옥(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 161-177.
- 황매향 · 김지현 · 유정이(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1호, pp. 3-12.
- 황소연(2010). 진로결정상태의 정서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nett, R. C.(1988). Toward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of the work/family literatur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Vol. 124 No. 2*, pp. 125-182.
- Baruch, G. & Barnett, R.(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578-585.
- Battle, A., & Wigfield, A.(2003). College women's value orientations toward family, career, and graduate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2*, pp. 56-75.
- Betz, N. E.(1994). Self-concept theory i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3 No. 1*, pp. 11-32.
- Betz, N. E., & Fitzgerald, L. F.(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Blau, F. D., & Ferber, M. A.(1992).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ronzaft, A. L.(1991). Career, marriage, and family aspirations of young black college women. *Journal of Negro Education, Vol. 60*, pp. 110-118.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21 No. 2*, pp. 230-258.
- Ceci, S. J., Williams, W. M. & Barnett, S. M.(2009).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science: Cociocultu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5 No. 2*, pp. 218-261.
- Crosby, F. J.(1991). *Juggling: The unexpected advantages of balancing career and*

- home for women and their families*. New York: Free Press.
- Cunnumgham, J. L., & Rosa G. M.(2008). The interactive effects of proactive personality and work-family interference on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13 No. 3*, pp. 271-282.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pp.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o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pp. 71-75.
- Dominico, M. D., & Jones, K. H.(2006). Career aspirations of women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Vol. 22 No. 2*, pp. 130-139.
- Eisenhart, M., & Holland, D.(1992). Gender constructs and career commitment: The influence of peer culture on women's commitments in college. In T. Whitehead and B. Reid(Eds.), *Gender constructs and social issues(pp. 142-180)*. Champaign,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Reprinted in Wyer, et al.(Eds.) *Women, science, and technology*. NY: Routledge, 2000.
- Fitzgerald, L. F., & Crites, J. O.(1980).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do we know? What do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7*, pp. 44-66.
- Frone, M. R.(2003).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and L. E. Tetrick(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pp.143-1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zywacz, J. G., & Marks, N. F.(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f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5*, pp. 803-855.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8*, pp. 326-339.
- Headey, B., & Wearing, A.(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pp. 731-739.

- Hoffnung, M.(1993). College women's expectations for work and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Association for Women in Psychology*. Atlanta, GA.
- Hu, L. Z.,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Vol. 6*, pp. 1-55.
- MacKinnon, D. P., & Dwyer, J. H.(1993). Estimating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on Review, Vol. 17*, pp. 144-158.
- McCracken, R. S. & Weitzman, L. M.(1997). Relationship of Personal Agency,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Traditional odd Career choice Women's Attitudes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4*, pp. 149-159.
- O'Brien, K. M., & Fassinger, R. E.(1993). A causa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0 No. 4*, pp. 456-469.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7*, pp. 316-329.
- Peake, A. & Harris, K. L.(2002).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The Influence of Gender, Career Traditionality, and Marriage Pla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0*, pp. 405-421.
- Reskin, B., & Padavic, I.(1994). *Women and men at work*. Thousand Oaks, CA: Sage.
- Rothbard, N. P.(2001). Enriching or depleting? The dynamics of engagement in work and family rol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6*, pp. 655-684.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3*, pp. 290-312.
- Sobel, M. E.(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6*, pp. 159-186.

- Steffy, B. D., & Jones, J. W.(1988). The impact of family and career planning variables on the organizational, career, and community commi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32*, pp. 196-212.
- Stubbe, J. H., Posthuma, D., Boomsma, D. I., & Geus, E. J. C.(2005). Heritability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s: A twin-family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Vol. 35*, pp. 1-8.
- Suh, E. M., Diener, E., & Fujita, F.(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1091-1102.
- Taylor, K. M., & Betz, N.(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pp. 63-81.
- Taylor, N. B., & Pryor, R. G. L.(1985). Exploring the process of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7*, pp. 171-190.
- Weitzman, L. M.(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to assess realism of attitude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Weitzman, L. M.(1994). Multiple-role realism: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rocess of planning to combine career and family role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Vol. 3*, pp. 15-25.
- Weitzman, L. M. & Fitzgerald, L. F.(1996).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scales to assess realism of attitude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pp. 269-284.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Kim, Yang-Hee* · Yoo, Sung-Kyung* · Lim, Jee-Suk*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women's career orientation is related to life-satisfactio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two variables based on previous studies, such a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making. A total of 345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ttitude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addi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attitude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life-satisfaction.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re was attitude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women.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nd counseling education were also made.

Key Words : women's career, career orientation, multiple role planning, self-efficacy

투고일 : 9월 15일, 심사일 : 11월 2일, 심사완료일 : 11월 18일

* Ewha Womans University

